

내년 지방선거 지자체장·지방의원 이런 행위는 선거법 위반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 예정인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경우 앞으로 의정활동 및 홍보물 발행, 각종 행사 개최 및 후원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없도록 각별한 신경을 쏟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 일부 지역의 경우 벌써 과열 조짐이 일고 있는데다 선관위가 내년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위반 소지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 교육청, 지방의회 등의 행·의정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 결과 127건의 위반 행위를 사전에 차단했다.

선관위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간 총 915건을 모니터링을 한 결과 127건의 위반행위 가운데 108건을 사전 시정도촉했고, 19건은 현지 시정 조치했다.

모니터링에 따른 주요 시정 내용으로는 지자체장의 각종 행사 참석 및 후원이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자체장 및 지자체가 시상·포상·표창을 하는 과정에 부상 등을 수여하는 행위 27건이 뒤를 이었다. 이어 ▲기타 급품제공 수반 사업 25건 ▲홍보물 발행

표창시 상패아닌 청자접시 등 수여
관광객에 일회용 우비 제공 행위
지자체 상징 배지 무상 제공
제3자 통해 전화 이용 의정 활동

16건 ▲업무추진비 5건 ▲의정활동 보고 3건 ▲연두순시 및 광고출연 각 2건 등이었다.

대부분 지자체장 또는 지자체가 행사 참석 주민들에게 음식물·음료수 및 기념품을 제공하려는 행위와 업무추진비를 통한 축·부의금 제공 등이 주요 시정 대상이었지만, 자칫 간과할 수 있는 행위도 상당수 포함됐다.

우선 지자체장이 특별한 현안 없이 관내 조합 대회에 계속·반복적으로 참석해 축사

하는 사례와 행사 사회자가 군수 지적을 소개하는 행위도 시정내용에 포함됐다.

이어 지자체장 및 지자체가 표창 및 포상을 하는 과정에 상장을 통상적인 상패가 아닌 청자 접시 등으로 제작해 수여하려는 사례도 선거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

또한, 법령 등의 근거 없이 관내 불우학생을 대상으로 수학여행비를 지급하거나 관광객들에게 우천시를 대비한 일회용 우비 제공, 향우회 임원들에게 지자체 상징 배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도 이번 시정 내용

에 포함됐다. 이밖에 지자체가 발행하는 홍보물 내용도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모니터링을 통한 시정 내용에는 홍보물을 통한 치적 선전이 가장 많았지만, 분기별로 지자체장의 홍보 내용이 제한돼 있음에도 이를 어기는 경우도 상당수 있었다.

동일 분기에 지자체의 사업계획, 추진실적을 실은 홍보물이 한 차례 발행했다면 다른 홍보물에 사업계획 등을 실을 수 없고, 지자체의 수상 내용을 실은 플래카드를 각 읍·면별로 1개씩 게시하는 것도 선거법 저촉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지방의원들이 의정보고 활동을 하는 과정에 본인이 아닌 제3자를 통해 전화로 이용한 의정활동 보고 행위도 선거법위반 행위로 해당된다.

전남 선관위는 “각종 행사 또는 업무추진비 집행과정에서 기부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모니터링을 하되 이러한 예방안내에도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 범죄가 발생하면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전남 김대중 전 대통령 4주기 추모 물결

‘도교 피랍’ 생환 40주년 기념미사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4주기를 맞아 광주·전남 지역에서 추모행사가 잇따라 열린다.

목포시에 따르면 오는 17일 삼학도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에서 추모식을 개최한다. 시는 18일 김대중 평화센터 주관으로 국립 서울현충원에서 추모식이 거행돼 하루 앞당겨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는 고인의 삶과 정치 역경을 주제로 한 ‘목포시민 아카데미’도 마련했다. 김성재 재단법인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 부이사장이 오는 16일 오후 3시 ‘대통령의 인생과 정치철학’이란 주제로 추모 강연을 한다.

광주에서는 오는 18일 오전 10시30분부터 광주YMCA에서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4주기 추모식’이 열린다. 6·15 광주전남본부와 민주당 광주시당, 김대중·노무현대통령 기념공민위원회가 주최하는 이날 추모식에는 주요 기관장과 정당 관계자, 시민사회 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한편 김대중평화센터는 13일 동작동 국립현충원에서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도교 피랍’ 생환 40주년 기념미사를 봉헌했다. 김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를 비롯해 민주당 권노갑 상임고문과 김원기 임채정 전 국회의장, 박지원 전 원내대표 등 구(舊) 민주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김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홍업 씨는 “그동안 생환 기념일을 ‘제2의 생일’로 지켜왔다”며 “김 전 대통령의 생전과 시대가 달라져 아쉬운 게 있지만 현재 민주당이 ‘그 분’의 유지를 잘 이어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미사에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도 참석했다.

‘도교 피랍’ 사건은 지난 1973년 8월 8일 중앙정보부 요원들이 당시 야당 지도자였던 김 전 대통령을 일본 도쿄의 호텔에서 납치한 사건으로, 김 전 대통령은 극적으로 구조돼 129시간 만에 동교동 자택으로 돌아온 사건이다. 40주기를 맞아 이날 민주당은 정부 차원의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방사성 물질 ‘제논’

지난 6월 3차례 검출

핵활동으로 발생하는 방사성 물질 제논(Xe)이 지난 6월 3차례에 걸쳐 국내 대기 포집장치를 통해 검출돼 정부가 원인 분석을 시도했으나 뚜렷한 이유는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지난 6월 3차례에 걸쳐 대기 중에서 제논을 포집했다.

포집은 국내에 설치된 장비로 이뤄졌으며 포집 이후 북한의 핵활동과의 연관성을 찾았으나 명확한 관련성이 나타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연협뉴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가 13일 오전 서울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김 전 대통령의 ‘도교 피랍’ 생환 40주년 기념미사를 봉헌하고 나서 분향하고 있다./연협뉴스

오늘 개성공단 생사 가늠 7차 회담

남북한은 14일 개성공단에서 제7차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을 열어 개성공단의 정상화 문제를 논의한다. 사실상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큰 이번 회담은 개성공단의 생사를 결정짓는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개성공단 정상화 촉구 비상대책위원회는 13일 서울 여의도 비대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 정부와 북측 당국은 제7차 실무회담에서 반드시 개성공단 정상화에 합의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번 회담의 최대 쟁점은 지난 6차례의 회

담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유사사태 재발방지 문제와 이번 사태의 책임 ‘주체’ 문제 등이다. 이번 회담에서도 막관까지 합의문 타결에 진통이 예상된다.

그러나 북한이 최근 적극적 태도로 남북관계 개선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극적인 정상화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정부도 북한이 전환적인 태도로 회담에 임할 경우 이번 회담에서 긍정적인 결론을 낸다는 것을 목표로 협상 전략을 가다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협뉴스



문순태 칼럼

연일 햇살이 짙어진 폭염 속에 정년은 몇 달 앞둔 후배 교수가 나를 찾아왔다. 그는 연구실에 가득한 수천 권의 책들을 버릴 수밖에 없으면서 탄식했다. 그의 부인이 아파트로 책을 가져오면 집을 나가버리겠다고 한다는 것이다. 후배 교수는 가난했던 시절, 이 책들을 한 권, 한 권 샀을 때의 눈물겨운 에피소드를 이야기하기도 했다. 얼마 전에는 서울에서 내려온 작가로부터, 요즘 작고한 문인들의 책들이 모두 버려지고 있다는 슬픈 이야기를 들었다.

나도 7년 전 정년을 할 때 연구실 책 때문에 고민한 적이 있다. 학교 도서관에 기증 의사를 밝혔더니 필요한 책만 골라가겠다고 했다. 학생들에게 나눠줄까 했으나, 조교는 학생들이 재미있는 책들만 가져갈 것이라고 했다.

그렇다고 쓰레기장에 버릴 수는 없었다. 소장하고 있는 책들 중에는 선우배 작가들과 동료 문인들로부터 사인을 하여 기증받은 것들도 많고, 가난했던 시

광주·전남에서 1년이면 30명이 넘는 교수들이 퇴직을 하고, 그들이 소장하고 있는 수만 권의 책들이 버려지고 있다. 전공서적들 중에는 구하기 어려운 책들도 많다. 그뿐인가. 광주 시내 도서관에서도 한 달이면 한 트럭 분량의 헌 책들이 폐지가 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렇듯 헌책들이 수난을 당하고 있는데 반해, 영국의 한 작은 마을에서는 헌책이 폐광촌 마을을 되살렸다. 영국 웨일스 지역, 주민 1000여 명이 사는 헤이온 와이(HAY-ON-WYE) 마을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북타운이 되었다. 1962년 옥스퍼드를 졸업한 리처드 부스는 고향에 정착, 문답은 소반사에 ‘리처드 헌책방’을 차리고 헌책들을 사들였다.

리처드 헌책방은 유럽 전역에 소문이 퍼졌으며 사람들이 몰려왔다. 지금은 문답은 극장, 민집, 창고 등 38개의 헌책방이 생겼다. 연간 100만 권 이상의 헌책이 팔리고, 수십만 명의 관광객들이 몰

책이 쓰레기로 버려지고 있다

려오고 있다. 1988년부터는 해마다 ‘헤이온 책 마을축제’를 열고 있다. 리뷰무대, 토론회, 영화, 음악공연, 시낭송 등 359개의 프로그램을 선보여, 문화와 지식의 대항연이 펼쳐진다.

지금은 문자시대가 죽어가고 디지털 시대가 되었다. 몇 년 전만 해도 ‘디지털 시대’라고 해서 아날로그의 추억을 맛볼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한 디지털 시대이다.

문자가 죽어가기 종이책이 천대를 받게 마련이다. 종이책이 버림을 받으니까 낭만과 정성이 휘발 되고 말았다. 종이책의 작은 활자에 눈을 박고, 밑줄을 긋고, 노트에 옮겨가며 읽던 시절이 그리운다. 밑줄 그어가며 읽을 때 걸리던 그 집중력이 오늘의 한국 예술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e북의 스마트시대에 어떻게 집중력이 걸리지는가. 앞으로 영상기술자는 많이 나올지 모르나 훌륭한 예술가가 나오지는 어려울 것 같다. 나는 책 그 자체만으로도 교사가 되고, 교육이 된다고 믿는다. 책이 있는 집과 책이 없는 집 아이들의 차이는 크다.

책은 마음의 양식이며, 지혜의 샘과 같다. 개인이 소장한 책에는 역사와 사연이 있다. 책을 버리는 것은 영혼과 아름다운 삶의 길을 던져버리는 것과 같다. (소설가)

그렇다고 쓰레기장에 버릴 수는 없었다. 소장하고 있는 책들 중에는 선우배 작가들과 동료 문인들로부터 사인을 하여 기증받은 것들도 많고, 가난했던 시

더욱이 내가 버릴 수 없는 책은 1959년도에 나온 두꺼운 녹두색 장정의 울유 문화사 세계문학전집이다. 83 때 나는 아버지한테 세계문학전집 한 짝을 사주면 아버지가 원하는 법과대학에 가겠다고 약속을 했다.

동계천 위의 한 칸짜리 낡은 판자 집에서 풀뿔을 굶던 아버지는 빛을 내어 세계문학전집 한 짝을 사주셨다. 나는 날마다 가방 속에 전집을 넣고 다니며 읽느라 성적이 자꾸 떨어졌다. 결국, 법대 대신 철학과에 입학했다. 아버지를 배신했던 이 눈물 젖은 책들을 어떻게 버릴 수 있겠는가. 나는 책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하다가 한갓진 생 오지에 문답은 카페를 샀다.

60평 공간에 책을 모두 쌓아놓고 나니 영혼의 부자가 된 기분이었다. 지금 많은 책이 쓰레기가 되고 있다.

책은 마음의 양식이며, 지혜의 샘과 같다. 개인이 소장한 책에는 역사와 사연이 있다. 책을 버리는 것은 영혼과 아름다운 삶의 길을 던져버리는 것과 같다. (소설가)

행복한 부지를 위한 자산관리 전문회사 ASSET KOREA since 2005.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부실채권(NPL) 매각. 광산구 우산동 웨딩홀 대지권 1345㎡ 건물 2974㎡. 감정가격 78억4천만원. 채권매각 24억원. 화순도곡 무인텔 대지 3198㎡ 건물 1107㎡. 감정가격 41억9천만원. 채권매각 23억. 화정동 예식장 대지 1094㎡ 건물 4489㎡. 감정가격 41억5천만원. 채권매각 20억원. 부실채권 매각은 현재 경제진흥중이거나 정치중인 물건을 유통화·자산매각 전문회사인 에셋코리아를 통해 선착순 수의계약으로 채권을 매입하는 유용한 제테크 방법입니다. 상담 010-7570-7525.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2층) (법인 앞에서 70m 변호시회관 옆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인 쪽으로 20m)

선암동 전원 주택용지 분양. 자연과 함께 하는 어등산 빌리지. 광산구 선암동 414-17번지 일원. 분양면적 7008㎡(117구). 분양가격 전용면적 평당 130만원. 각 필지 면적 약90평~280평(분할·합병가능). 현 토목공사 80%진행중. 단지설명 자연속 힐링 주거단지. 1. 분양면적은 전체가 살 수 있는 전용면적입니다. 2. 각 필지별 상·하수도관 연결공사 완료. 3. 각 필지별 건축허가 완료(각종세금 납부완료). 4. 각 필지별 6도로 접. 찾아오는길 선암지구 영광 → 호남대학교 어등산 빌리지. 도심속 친환경 행복주택 타운. 선운공인중개사 010-5166-0013 010-2475-0933

대한민국 명품 부동산 월간지 굿부동산저널 Goodboodongsan. 부동산 전문지 굿부동산저널 창간! 시시종횡월간 굿뉴스피플이 발행하는 굿부동산저널은 전국 부동산중개업소와 일반 시민들에게 매호 10,000부씩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보의 모든 것! 대한민국 명품 부동산 월간지 굿부동산저널에서 만나보십시오. 지사 모집. 굿부동산저널과 함께 성장해나갈 부동산공인중개사 여러분을 모집합니다. 모집분야: 본부장, 지사장, 기자. 지역: 전국을 비롯 광주 전남 각 시·군·구. 자격: - 부동산중개업 경력 3년 이상 - 언론에 관심이 많은 분. 인원: 00명. 제출서류: 이력서, 등본, 사진. 기간: 2013. 7. 16 ~ 8. 20까지. 특전: 각 지사 지면 2page 배정. 문의: (062) 673-5255 / FAX: 674-5255 / E-mail: cws2344@hanmail.net. 광주광역시 남구 독립로 40 www.goodboodongsan.com

부동산 성공 투자 하늘땅 공인중개사가 함께합니다. 상가건물. ▶첨단 월계동 건물 매 27억(보증금 2억8천.월 1,600만). ▶첨단 월계동 건물 매 34억. ▶월산동 6층 건물 매 14억5천(보증금 2억8천.월810만). ▶두암동 5층 건물 매 8억5천. ▶첨단 구분점포 105㎡ 매 8억6천(보증금 8천.월430만). 대지/전답. ▶신기동(수완지구) 원룸부지 323㎡(98평) 매 3억. ▶광산구 신창동 생산녹지 1,980㎡ 매 6억5천(창고,공장 적합). ▶완도군 약산면 11,000㎡ 매 10억(펜션용지,귀농지,전원주택 적합). ▶장흥군 장평면 13,165㎡ 매 3억5천(대 660㎡,신축주택 포함). ▶장흥군 용산면 101,851㎡ 매 6억(연수원,펜션,관광농원등 다용도). ▶여수 들산읍 전 1,874㎡ 매 2억(바다전망,전원주택,펜션 적합). 기타. ▶나주시 문평면 국도 1호선변 주유소 매 7억(용 4.5억 포함). ▶전남 소재 골프장 1,000억. ◎광주 전남권 매도 매수 물건 접수 환영합니다.◎ 부동산 투자의 새로운 패러다임. 하늘땅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5536-0382 Fax 062) 974-0449